

KAIST 학생들과 함께한 이노베이트 코리아 2025 하이라이트



4월 9일, 봄기운이 물씬한 가운데 올해로 9회를 맞이한 '이노베이트 코리아 2025'가 KAIST 류근철스포츠 컴플렉스에서 개최됐다. 올해 이노베이트코리아 코리아를 찾은 참관객들은 'Tech Up the Party!(테크·과학을 즐겨라!)'라는 주제처럼 전문가들의 토크쇼를 경청하는 한편, 파티라는 명칭에 걸맞게 축제와 같은 공연을 즐겼다. 참관객들이 어떤 매력에 푹 빠졌을지, 흥겨움이 끊이지 않는 국내 최고의 ICT·과학행사 현장을 함께 들여다보자.



헤럴드 에코페스타 첫 토론 섹션에선 김형준 교수와 박성빈 학생이 기후변화의 현주소와 미래를 살폈다.

그간 이노베이트 코리아는 ICT·과학기술을 대표하는 핵심 인사들이 글로벌 기술 경쟁의 현주소를 진단해 왔다. 그러나 9회차를 맞은 올해에는 과학·기술계와 대중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이겠다고 예고했다. 즉 KAIST가 쌓아 올린 성과를 구성원들과 즐기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대중들과 공유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사전 신청자만 약 2만 명에 달했으며, 현장에도 1만 명에 가까운 참관객이 모이는 등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오전 6시부터 대기 줄이 이어지며, 이노베이트 코리아의 인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 오프닝 공연에서는 록 밴드 국가스텐의 하현우 싱어송라이터가 등장해 ‘Lazenca, Save Us’ 등을 선보이며 현장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헤럴드 에코페스타, 기후위기와 친환경 혁신을 말하다

오프닝 세션 ‘헤럴드 에코페스타(H.eco Festa) 2025’에선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두 가지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세

션인 ‘기후변화의 시대, 10년 후를 예측하다’는 김형준 KASI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와 박성빈 KASI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생의 토론을 통해 기후변화의 현주소와 미래를 살폈다. 김 교수는 상위 15%의 국가가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이 크단 점을 지적하며 “기후 위기는 과학적 분석을 넘어 책임과 형평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 위기는 더 이상 과학이 아닌 ‘윤리’의 문제”란 점을 짚었다. 지난해 KAIST 기후테크 전 국민 오디션에서 탄소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방사능 전지 아이디어를 제안한 박 씨는 기성세대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박 씨는 “기성세대로 인해 망가진 미래를 살게 될 아이들과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은 기후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기후변화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다면, 또다시 다음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게 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다음 세션에선 ‘에코가 머니? 친환경이 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세훈 어썸레이 주식회사 CEO, 김정빈 수퍼빈(주)



(좌) 이순열 투자 대표는 앞으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KAIST 졸업생인 김효이 주식회사 이너시아 대표는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인 사업의 중요성을 전했다

대표이사, 김효이 주식회사 이너시아 대표, 전건하 홀리데이비스 대표가 참여했고, 이순열 한국사회투자 대표가 모더레이터를 맡았다. 각 대표는 친환경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편견을 이겨내고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통해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신소재·자원 순환·여성용품·패스트 패션 분야에서 겪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KAIST 학생과 참관객에게 응원을 전했다. 이순열 모더레이터는 “앞으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기후테크 창업자본과 KAIST의 혁신 기술이 기후변화 시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전과 혁신, 새로운 시대를 말하다

에코페스타 이후에는 KAIST 댄스동아리 루나틱의 축하공연과 함께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됐다. 이광형 KAIST 총장·최진영 헤럴드미디어그룹 대표·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의 축사가 진행된 후에는 ‘성공하고 싶다면’이라는 주제로 서정진 셸트리온 회장의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서 회장은

은 “성공은 어디까지나 절박함에서 온다”며 “전공이 아닌 분야라도 두려움을 갖지 말고 거침없이 뛰어들면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객들에게 조언했다. 실제로 그는 생물학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산업에 뛰어들어 오늘날과 같은 성과를 거뒀다. 강연 이후, ‘전공이 아닌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주고 설득할 수 있었냐’는 KAIST 학생의 패기 있는 질문이 이어졌다. 서 회장은 독학에 대한 비법을 공개하며 “앞으로 하고 싶은 일과 전공이 맞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답변 후 서 회장은 직접 사인이 적힌 명함을 학생에게 건넸다. 이에 관객석에선 부러움이 담긴 환호성이 쏟아졌다.

다음 순서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주인공을 맡은 이정재 아티스트컴퍼니 이사와 함께 ‘K엔터의 오늘과 내일’이란 주제로 과학토크쇼가 진행됐다. 이날 이 이사는 배우이자, 엔터테인먼트 경영자로서 정재승 KAIST 교수, 황경주 아티스트컴퍼니 대표이사, 그리고 박혜림 헤럴드 경제와 엔터테크의 기술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이사는 콘텐츠에도 다양한 테크 기술이 활용되는 점을 짚었다.



KAIST 댄스동아리 루나틱의 흥겨운 축하공연과 함께 본격적으로 행사의 막이 올랐다

그는 “과거에는 테크기술이 하나의 볼거리로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 혹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며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지만, 오늘날에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이사는 “이제는 기술과 이야기를 얼마나 잘 접목하는지에 중점을 두어야 할 때”라며 “KAIST 여러분이 엔터 비즈니스 사람들과 함께 기술 협업을 이루면 시장에서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토크쇼에 앞서 KAIST 로봇 동아리 ‘미스터(MR)’의 깜짝 무대가 진행됐다. 해당 동아리는 직접 제조한 사람이 움직이면 총을 쏘는 로봇과,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라 움직이는 로봇을 활용해 오징어게임 속 ‘얼음 땡’ 놀이를 패러디했다. 학생들은 이 이사에게 “파란 버튼을 눌러 우리를 구해달라”고 즉석 퍼포먼스를 요청했다. 이에 이 이사는 무대에 참석해 팔로 얼굴을 가리는 ‘얼음’ 장면을 학생들과 함께 선보였다.

연이어 김대수 KAIST 교수가 사회를 맡아 ‘변화의 시대’에 큰 성공을 거둔 전 프로바둑기사 이세돌, 공경철 엔젤로보틱스 의장, 이해신 KAIST 교수의 과학 콘서트가 진행됐다. 이들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한 비결을 공



서정진 셸트리온 회장은 KAIST 학생의 질문에 유쾌한 답변을 건네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유했다. 공 교수는 김승환 연구원과 함께 웨어러블 로봇을 시연하며 “AI의 등장으로 로봇의 설계부터 제조 방법, 활용에 이르기까지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 교수는 “이러한 기술 발전 속도에 주눅 들지 말고, 작은 성공을 축적시켜 나가며 이를 집단지성으로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바둑기사는 “원래 프로 바둑기사는 ‘공부’ 대신 연구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제는 AI를 보며 공부하는 시대가 됐다”면서 “변화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실패를 배우며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해내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마지막으로 탈모 방



①	③	⑤	⑥
②	④		

- ① ② KAIST 로봇동아리 미스터(MR)의 깜짝 무대에 참여한 이정재 아트컴퍼니 대표이사
 ③ 이노베이트 코리아에선 토크쇼 이외에도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파티 분위기를 이어 나갔다.
 ④ 김승환 연구원이 엔젤로보틱스의 웨어러블 로봇을 시연했다.
 ⑤ KAIST 기계공학과 초빙교수이자 글로벌 스타 지드래곤이 엔터테크에 관한 새 지평을 열었다.
 ⑥ 이노베이트 코리아 행사 현장에서는 오전 6시부터 대기 줄이 이어지며, 콘서트장을 방불케했다.
 ©헤럴드 경제

지 삼푸를 개발한 이 교수는 “1만 시간을 연구하면 원가를 이룰 수 있다지만, 어느덧 19만 시간을 연구했다”며 끝없는 도전을 통해 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과학과 예술의 만남,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 잡다

마지막 무대를 앞두고, K팝 대표 여성 솔로 가수 3인의 무대도 이뤄졌다. 가수 청하는 대표곡인 ‘스트레스’, ‘롤러코스터’, ‘벌써 12시’ 등을 부르며 진지했던 분위기를 파티장처럼 뒤바꿨다. 이어 비비는 ‘데레’, ‘나쁜 X’, ‘밤양갱’을 부르며 올해 첫 무대를 KAIST에서 선보여 감회가 남다르다는 의견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가수 선미는 ‘벌룬 인 러브’, ‘보라빛 밤’, ‘꼬리’, ‘가시나’, ‘24시간이 모자라’ 등을 부르며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며 “여러분이 만들어갈 혁신에 대해 듣고 싶다”며 “내년엔 무대가 아닌 청중으로 참

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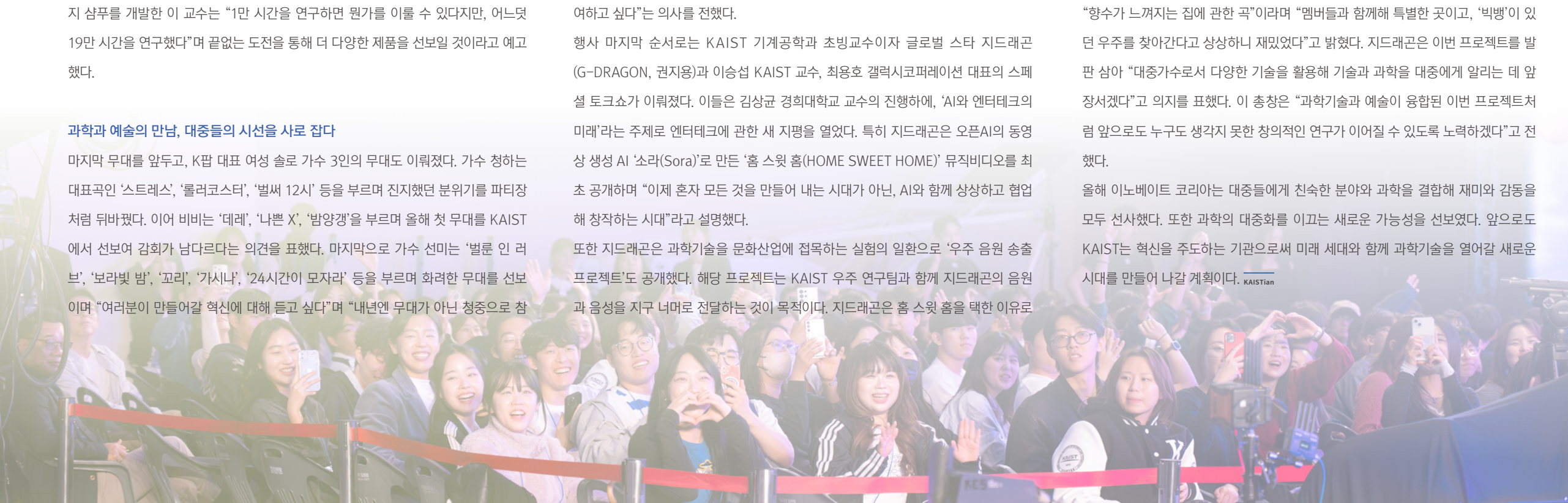
행사 마지막 순서로는 KAIST 기계공학과 초빙교수이자 글로벌 스타 지드래곤(G-DRAGON, 권지용)과 이승섭 KAIST 교수, 최용호 갤럭시코퍼레이션 대표의 스펙셜 토크쇼가 이뤄졌다. 이들은 김상균 경희대학교 교수의 진행하에, ‘AI와 엔터테크의 미래’라는 주제로 엔터테크에 관한 새 지평을 열었다. 특히 지드래곤은 오픈AI의 동영상 생성 AI ‘소라(Sora)’로 만든 ‘홈 스위트 홈(HOME SWEET HOME)’ 뮤직비디오를 최초 공개하며 “이제 혼자 모든 것을 만들어 내는 시대가 아닌, AI와 함께 상상하고 협업해 창작하는 시대”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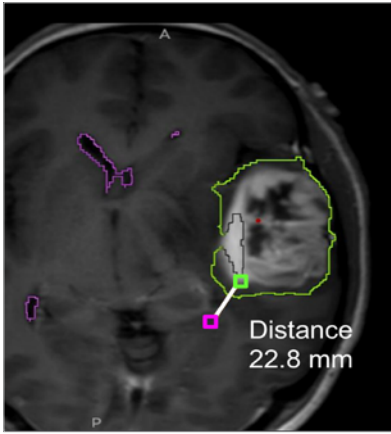
또한 지드래곤은 과학기술을 문화산업에 접목하는 실험의 일환으로 ‘우주 음원 송출 프로젝트’도 공개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KAIST 우주 연구팀과 함께 지드래곤의 음원과 음성을 지구 너머로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드래곤은 홈 스위트 홈을 택한 이유로

“향수가 느껴지는 집에 관한 곡”이라며 “멤버들과 함께해 특별한 곳이고, ‘빅뱅’이 있던 우주를 찾아간다고 상상하니 재밌었다”고 밝혔다. 지드래곤은 이번 프로젝트를 발판 삼아 “대중가수로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기술과 과학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이 총장은 “과학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이번 프로젝트처럼 앞으로도 누구도 생각지 못한 창의적인 연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이노베이트 코리아는 대중들에게 친숙한 분야와 과학을 결합해 재미와 감동을 모두 선사했다. 또한 과학의 대중화를 이끄는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였다. 앞으로도 KAIST는 혁신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써 미래 세대와 함께 과학기술을 열어가갈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KAISTian](#)

KAIST와 갤럭시코퍼레이션은 ‘AI 엔터테크’의 일환으로 지드래곤의 메시지와 음원을 우주로 송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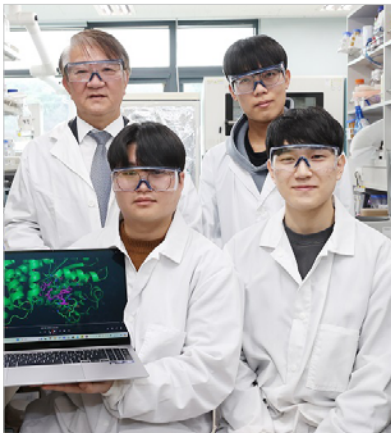




+ 교모세포종 암의 씨앗 ‘전암 세포’ 첫 규명·정조준했다

교모 세포종은 공격적이고 예후가 나쁜 악성 뇌종양으로, 표준 치료 후에도 1년 이내 재발해 생존율이 매우 낮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KAIST 의과학대학원 이정호 교수 연구팀은 교모세포종 중 암세포로 발전할 수 있는 전암 세포가 있다는 것을 최초로 밝혔다. 이를 통해 교모세포종의 전암 세포를 표적으로 삼아 암 진화와 재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치료 패러다임의 기초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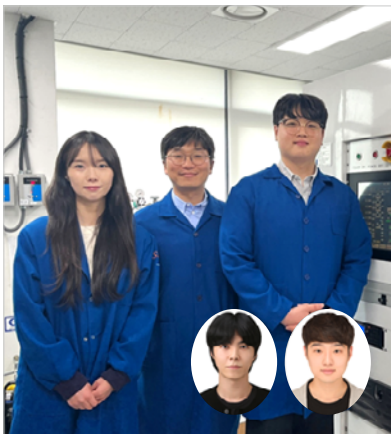
» 더보기



+ 235종 화학물질 친환경 생산 ‘세포공장 설계도’ 완성

기후 위기와 화석 연료 고갈로 인해 지속 가능한 화학 물질 생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 특훈 교수 연구팀은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는 미생물 5종을 시뮬레이션했다. 이를 통해 바이오 연료, 플라스틱 등 원료가 되는 235가지 화학물질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데 성공했고, 상용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해당 연구는 친환경 화학물질 생산 기술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더보기



+ 뇌처럼 생각·반응하는 반도체 나왔다

KAIST 신소재공학과 김경민 교수 연구팀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액체 상태 기계(LSM)의 하드웨어 구현을 가능케 하는 뉴런 지스터 소자 개발에 성공했다. 뉴런지스터란 뉴런의 흥분과 억제 반응을 모방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를 스스로 처리하고 학습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다. 향후 뇌 신경 모사형 AI, 예측 시스템, 혼돈 신호 제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더보기



+ 머리카락 1,000분의 1 나노섬유 혁신, 세계 최고 CO₂ 전해전지 개발

KAIST 기계공학과 이강택 교수 연구팀은 신소재 세라믹 나노 복합 섬유를 개발했다. 이는 전기가 잘 통하는 ‘초이온전도체’를 기존 전극에 함께 섞은 것으로 전기화학 반응이 더 활발히 일어난다. 또한 낮은 온도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해당 소재를 활용한 세라믹 전해전지는 기존에 보고된 소자 중 최고 성능의 이산화탄소 분해 성능을 갖췄을 뿐 아니라, 300시간의 장기 구동에도 안정적인 전압을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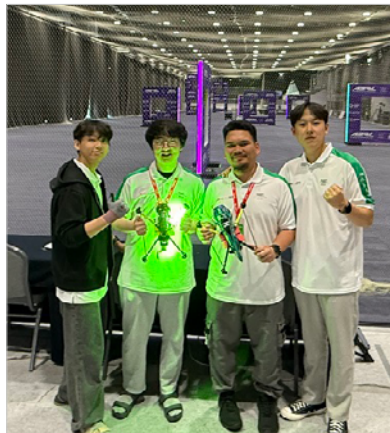
» 더보기



+ 김성각 명예교수 12억원 상당 주식 KAIST 기부

KAIST 김성각 화학과 명예교수가 12억 원 상당의 (주)한켐 주식 12만 주를 KAIST에 22일 기부했다. 이는 KAIST 화학과와 (주)한켐이 지난 25년간 이어온 긴밀한 산학협력의 상징으로, 학문과 산업이 함께 걸어온 여정의 결실이란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화학과는 이번 기부를 바탕으로 연구 인프라를 강화하고 화학 분야의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과 신사업 발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 더보기



+ 세계 최대 자율드론 챔피언십 대회 세계 3위 쾌거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심현철 교수 연구팀이 지난 12일 아랍에미리트 정부 후원으로 개최된 아부다비 자율 레이싱 대회(A2RL)의 드론 챔피언십 리그에서 세계 3위를 차지했다. 본선은 예선을 통해 선발된 14개 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그중 8개 팀이 최단 비행 시간 경연 준결승에 진출했고, KAIST는 세계 종합 3위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자율비행 드론의 동시 자율 비행과 드래그 레이싱에서도 2위를 차지했다.

» 더보기



+ 기계공학과 김승우 명예교수, 삼성호암상 공학상 수상

KAIST 기계공학과 김승우 명예교수가 2025 삼성호암상 공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호암상은 혁신적인 연구와 헌신으로 과학과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며,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들에게 수여된다. 김 교수는 펄초 레이저를 이용해 정밀도와 안정적인 제어를 획기적으로 향상한 초정밀 광계측 기술을 개척했다. 이를 통해 산업 및 우주 항공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세계적인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 더보기



+ KAIST 김형준 교수, 양자 및 계산화학 최고 권위 포플 메달 수상

KAIST 화학과 김형준 교수가 일본 고베에서 열린 아태 이론 및 계산화학회(APATCC)에서 포플 메달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복잡한 전기화학 계면 화학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새로운 계산화학 방법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했다. 새로운 계산화학 방법론은 전기화학 분야의 오랜 난제 중 하나인 ‘전기 이중층’구조를 규명했으며, 이는 에너지 및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더보기



+ 아이디스와 함께 실리콘밸리 캠퍼스 구축, 글로벌 창업 본격화

‘KAIST는 글로벌 영상보안 전문기업 아이디스(IDIS)와 ‘KAIST-아이디스 실리콘밸리 창업 캠퍼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KAIST 실리콘밸리 아이디스 캠퍼스’를 조성하고, 세계 수준의 창업 교육과 기업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뉴욕대 중심의 첨단 연구 협력에 이어, 실리콘밸리의 창업생태계도 아우를 수 있던 점에서 KAIST의 포괄적 글로벌 전략을 보여준다.

» 더보기



+ 마라토너 로봇, 부리는 탈모케어 등 2025 과학축제 전시

KAIST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 축제인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에 참여했다. 연구 성과 전시관인 ‘호기심 연구소’에서는 사족 보행 로봇 ‘라이보’, 폴리페놀 팩토리의 ‘리프트 맥스 308’, 엔젤로보틱스의 ‘웨어러블 로봇’ 등이 선보였다.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호기심 발전소’에선 뇌인지과학과의 ‘브레인 오가노이드’, 전기및전자공학부의 ‘푸드센서’ 등 KAIST의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다.

» 더보기



+ 이광형 총장·최태원 회장, AI 시대 기업가정신 논하다

KAIST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AI 미래세대와의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선 재계·학계 리더와 KAIST 출신의 AI 분야 창업자 및 청년 연구자들이 모여 AI가 연구 생태계와 산업 구조에 가져온 변화와 미래 방향성에 대해 소통했다. 행사 현장에선 KAIST 출신 대표 AI 분야 창업자 및 청년 연구자 4인의 열띤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KAIST 구성원 2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 더보기



+ KAIST 미술관, 고흐·툼블리를 품고 진짜 명작을 만나다

KAIST 미술관은 뉴욕에서 활동 중인 갤러리스트 신홍규의 소장 작품을 선보이는 기획전시 〈명작의 금고: The Vault of Masterpieces〉를 29일 개막한다. 이번 전시에는 18세기 작가 프랑수아 부셰, 19세기 거장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비롯해 20세기 추상주의 대가 사이 톰블리, 후앙 미로의 친구 카를라 프리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 더보기